

투명 유리 내부의 컬러 미세형상 가공

김영미*, 유병현, 조성학, 장원석, 김재구, 황경현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가공그룹)

Micro-machining inside of a transparent glass

Y. M. Kim, B. H. Yoo, S. H. Cho, W. S. Chng, J. G. Kim, K. H. Whang (Nano Machining Group, KIMM)

ABSTRACT

We have successfully formed brown colored patterns inside of a transparent borosilicate glass generally known as BK7, laying the focus of near infrared Ti: sapphire femtosecond laser beam in the bulk BK7 glas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laser power well below the damage threshold of BK7 in forming the color center. Thanks to the low laser power, there was no laser induced mechanical damage such as cracks or threads in the color formed area. From the absorbance spectrum and its gaussian fitting, we found the band gap of BK7, 4.21eV, and three absorption edges.

Key Words : color formation (색 형성), femtosecond laser (펨토초 레이저), absorption spectrum (흡수스펙트럼), transparent glass (투명 유리), BK7 glass (BK7 유리)

1. 서론

BK7 유리는 상품명 Pyrex로 잘 알려진 봉규산 유리로 화학적으로는 $B_2O_3 \cdot 3SiO_2$ 로 표시되며, 구조적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BO_3 와 사면체 모양의 SiO_4 가 비정질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BK7 유리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하고 열팽창이 적으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기포가 적은 특성으로 인해 렌즈, 프리즘 등과 같은 광학부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유리보다 비교적 낮은 굴절률을 가지므로 광섬유의 클래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1]

BK7 유리는 가시광선 영역 혹은 이보다 낮은 에너지의 빛이 낮은 강도로 입사될 경우 대부분이 투과되며, 감마선, 엑스선, UV 레이저 등과 같은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파가 수 GW/cm^2 정도의 강도로 BK7 유리에 조사되는 경우 컬러 센터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형성된 컬러 센터가 높은 에너지의 빔을 조사함으로 인해 사라지는 현상은 지난세기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펨토초 레이저가 개발되어 훨씬 더 손쉽게 투명한 유리에 색을 주입할 수 있게 되었다.[2, 3]

본 실험에서는 상온에서 근적외선 파장을 가지는 Ti:Sapphire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불순물이 도입되지 않은 고순도의 투명한 BK7 유리 내부에 갈색을 띠는 패턴을 구현하였으며, 제조된 패턴의 선형흡수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Gaussian fitting 하여, 제작된 패턴에서 상온에서 장시간 안정하며 불순물에 관계없는 컬러센터가 형성되었음을 보였다.

2. 실험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가공이 용이하며 광학특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BK7 유리 내부에 펨토초 레이저의 초점이 오게 하여 투명한 유리 내부에 갈색 면을 가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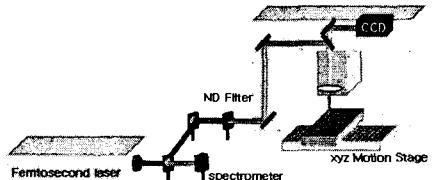


Fig. 1 Diagram of machining system using femtosecond laser.

색 형성을 위해 조사한 레이저는 다이오드로 펨핑된 Nd:YVO₄ 레이저를(Coherent, Vitesse) seed로 발진하며, mode lock 되어 있는 Ti:Sapphire laser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펄스는 stretch 된 후 Ti:Sapphire regenerative multipass amplifier(Quantronix, Titan amplifier)를 이용하여 증폭되고, Q-switch 장착 Nd:LiYF₄ 다이오드 레이저(Quantronix, 527DQ)로 펨핑된 800nm 파장의 펨토초 레이저(Quantronix, Integra system)를 사용하였다.

가공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x, y, z축 방향으로 각각 오차범위 50nm 이내에서 작동되는 스테이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가공된 시편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100배까지 확대하여 가공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UV-VIS 스

스펙트로미터(Shimadzu, UV-2450)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제작된 시료의 색은 널리 사용되는 백색광원인 형광등과 할로겐램프 아래에서 확인하였다.

3. 결과

Fig. 1 의 장치에 레이저 빔 출력이 17mW가 된 상태에서 5x 대물렌즈를 이용하여 레이저 빔을 BK7 유리의 표면으로부터 200 μm 깊이에 접속시킨 후 0.5mm/s의 속도로 선 스캔 하여 갈색에 가까운 색을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구현하였다(Fig. 2). 이때 면을 채운 선들 간의 간격은 15 μm 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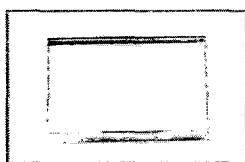


Fig. 2 The image shows the color shaded area in a bulk BK7 glass, by the femtosecond laser machining.

Fig. 2의 갈색으로 가공된 부분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100배까지 확대하여 본 결과 레이저 빔이 접속된 영역에서 가공에 의한 crack, thread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O. M. Efimov 등은 봉규산 유리에 펨토초 레이저를 damage threshold 이하가 되도록 조사하여 컬러센터를 형성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O. M. Efimov 등은 낮은 펨토초 레이저 파워를 구현하기 위하여 레이저의 초점을 가공하는 유리 재질 외부에 두어 자유로운 패턴 형성이 어려웠으나, 본 실험에서는 필터를 사용해 주어 레이저 빔의 강도를 줄여줌으로서 레이저 빔의 초점이 봉규산 유리 내부로 오더라도 색체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공의 용이성을 더하였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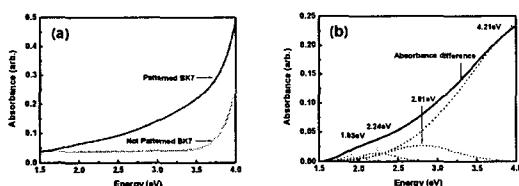


Fig. 3 The absorbance spectra of patterned and not patterned BK7(a), (b) shows absorbanc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pectra and its decomposed curves by the Gaussian components.

별도로 불순물 처리를 하지 않은 BK7 유리와 갈색으로 컬러센터가 형성된 BK7 유리의 선형흡수특성을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text{B}_2\text{O}_3\text{-3SiO}_2$ 유리의 밴드 갭 에너지인 4eV 영역을 피하여 1.5eV ~ 4eV

에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Fig. 3(a))[2]

컬러센터가 형성된 부분만이 주는 광흡수 특성을 보기 위해 갈색으로 패턴이 입혀진 부분에서 측정된 흡수스펙트럼과 패턴을 입히지 않은 BK7 유리의 흡수스펙트럼의 차이를 보았다(Fig. 2 (b)). 이 스펙트럼을 세 개의 Gaussian 곡선과 밴드 갭에 해당하는 흡수단을 fitting할 수 있었다. Gaussian fitting을 통해 본 실험에 사용된 BK7 유리의 밴드 에너지는 4.21eV이며, 펨토초 레이저의 조사에 의해 밴드 내에 형성된 컬러 센터는 각각 1.93eV, 2.24eV, 2.81eV 근처가 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제작된 패턴은 형광등과 할로겐램프에서 보았을 때에 갈색을 띠었다.

4. 결론

800nm 영역의 파장을 가지는 Ti:Sapphire Femtosecond laser를 투명한 재질의 BK7 유리에 조사하여 갈색 빛을 타내는 영역을 벌크 유리의 내부에 가공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레이저 가공에 의한 유리의 기계적 손상은 전혀 없었으며, 선형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Gaussian에 fitting한 결과 밴드 갭 에너지는 4.21eV, 펨토초 레이저의 조사에 의해 밴드 내에 조성된 컬러센터의 에너지는 각각 1.93eV, 2.24eV, 2.81eV 근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으로부터 BK7 유리에 컬러 형성을 위해 펨토초 레이저 조사 시 필터를 사용하여 damage threshold보다 낮은 파워를 가해야 함을 알았으며, 이러한 필터운영기법으로 추후 유리 내에 선 및 점의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자체사업(KM135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저자들은 과학기술부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D. L. Griscom, G. H. Sigel Jr., R. J. Ginther, "Defect centers in a pure-silica-core borosilicate-clad optical fiber: ESR studies" J. Appl. Phys., Vol. 47, pp. 960-967, 1976.
- W. T. White III, M. A. Henesian, M. J. Weber, "Photothermal-lensing measurements of two-photon-induced color centers in borosilicate glasses at 532nm" J. Opt. Soc. Am. B, Vol. 2, pp. 1402-1408, 1985.
- O. M. Efimov, K. Gabel, S. V. Garnov, L. B. Glebov, S. Grantham, M. Richardson, and M. J. Soileau, "Color center generation in silicate glasses exposed to infrared femtosecond pulses" J. Opt. Soc. Am. B, Vol. 15, pp. 193-199, 1998.